

대학도서관 주제화의 방향과 구성요소 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rection of Subject-Divisional Plan and the Change of Composition Factors in University Libraries

정재영(Jae-Young Chung)*

남태우(Tae-Woo Nam)**

목 차

- | | |
|---------------------|---------------|
| 1. 서 론 | 4. 1 물리적 구성요소 |
| 2. 대학도서관의 환경변화 | 4. 2 지적구성요소 |
| 2. 1 대학도서관 변화의 필요성 | 4. 3 인적구성요소 |
| 2. 2 대학도서관 변화의 방향 | 4. 4 이용자구성요소 |
| 3. 대학도서관 주제화의 방향 | 5. 결 론 |
| 4. 주제화를 위한 구성요소의 변화 | |

초 록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의 주제화 경향과 구성요소별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새로운 정보환경과 서비스 제공환경의 변화, 대학의 학문적 특성 그리고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학도서관의 장서와 서비스는 주제화를 기초로 하여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주제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 도서관을 구성하는 물리적·지적·인적·이용자구성요소의 변화를 주제화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건물 및 공간의 편의성과 동선에 대한 고려, 논리성보다는 실효성에 기초한 장서의 구성 및 배치, 사서의 주제능력 개발을 통한 주제적 서비스의 활성화 그리고 점차 주제적 성향을 보이는 이용자들의 변화에 따라 도서관의 장서와 서비스는 주제를 기초로 재조직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find the direction of subject-divisional plan and the change of composition factors in university Library. To confront new information environment, change of service providing environment, academic characteristics of universities, and users' information needs, the collection and service of university libraries are needed to be restructured based on subject-divisional plan. To adopt subject divisional plan effectively,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necessity and reasonability of subject - divisional plan by analyzing a change of physical, intellectual, human, and user factors in the libraries from the aspect of subject-divisional plan. That is, the collection and service of university libraries should be reorganized according to the subjects along with such changes as below. First, people came to consider convenience of space and path of building inside more than past. Second, collection becomes constructed and materials are located based on effectiveness rather than logicality. Third, subject oriented service of library became active through developing the subject abilities of librarians. Fourth, users have tendency to visit libraries for a special subject matter.

키워드: 대학도서관, 주제화, 주제형 조직구조, 주제별 자료실, 구성요소

University Library, Subject-Divisional Plan, Subject Library, Subject Specialization,
Composition Factor

* 서강대학교 도서관 사서(jaeyoung@sogang.ac.kr)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namtw@cau.ac.kr)

논문접수일자 2005년 8월 15일

제재확정일자 2005년 9월 12일

1. 서 론

1990년대 중반 본격적으로 국내 대학도서관에 도입되기 시작한 장서구분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주제화는 도입기를 지나 발전기에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주제화가 대학도서관 서비스의 효과적인 방안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하며, 주제화의 유형이 대학도서관의 한국적 상황과 현실에 맞게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주변환경과 정보환경의 변화를 예의 주시함으로써 주제화를 적용하고자 하는 대학도서관이나 이미 적용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에 주제화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대학도서관 변화의 필요성과 변화의 방향을 분석함으로써 변화를 예측하고 주제화의 적절한 적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도서관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변화를 주제화의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주제화를 적용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대학도서관의 주제화 적용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도서관 주변 환경의 변화와 학자들의 주장을 분석함으로써 변화된 환경에 따른 주제화의 당위성을 입증하고, 도서관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요소별 변화를 주제화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주제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대학도서관의 환경변화

2. 1 대학도서관 변화의 필요성

현재 대학은 신입생수의 지속적인 감소, 교육시장 개방 그리고 대학간 무한 경쟁에 따른 특성화와 전문화의 요구 등 다양한 변화요인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점차 제공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서비스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내 조직간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사서의 역할도 단순한 정보의 수집이나 제공에서 정보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보매개자로서의 기능과 정보선별자의 역할까지 요구받고 있다.

도서관의 제 기능들과 자료형태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대학도서관은 부서간 업무구분이 명확하고 일상적 업무처리와 조직관리에 있어서는 장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부서간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못해 이용자의 요구에 유연성을 가지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대학도서관은 이용자 중심, 서비스 중심의 구조로 변화해야 하며 사서는 이용자를 위해 보다 다양하고 변화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F. W. Lancaster & A. J. Warner(1993)는 도서관이 다음 <표 1>과 같이 점차 종이형태에서 하이브리드 형태, 전자 형태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도서관과 사서의 역할도 다음과 같이 변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표 1〉 도서관 자료의 저장, 처리, 전달방법의 변화

	책자형태(Paper)	혼합형(Hybrid)	전자형태(Electronic)
저장	책자형태의 1·2차 자료	책자형태의 1차 자료 책자나 전자적 형태의 2차 자료	전자적 형태
처리	책자형태로 된 1차 자료의 검색을 위해 책자형태의 2차 자료 탐색	책자형태로 된 1차 자료의 검색을 위한 온라인 탐색	전자형태의 자료에 대한 온라인 검색 및 탐색
전달	책자형태로의 전통적 전달	책자형태 자료의 전자적 전달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디지털 전송

- 1) 기본적인 종이형태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건물로서의 도서관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으며 사실상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을 것이다.
- 2) 자료는 지역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와 함께 원격 접근이 가능해짐에 따라 위치가 다양화될 것이다.
- 3) 정보전문가 즉, 사서들은 더 이상 이용자와 종이형태로 된 자료를 연결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하지 않게 될 것이며, 독자적인 이용자를 위한 강력한 검색 및 탐색시스템을 고안하고 이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W. Crawford & M. Gorman(1995)은 미래의 도서관을 다음과 같이 예견하고 있다.

- 1) 인쇄 및 전자 커뮤니케이션이 공존할 것이다.
- 2) 일차적 텍스트와 하이퍼텍스트가 공존할 것이다.
- 3) 사서에 의한 중개와 직접 접근이 공존할 것이다.
- 4) 소장과 접근이 공존할 것이다.
- 5) 공간과 인터페이스로서의 도서관이 공존 할 것이다.

M. Bowers(1996)는 Minnesota 대학의 구조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다음과 같은 7가지 가정을 가지고 도서관의 미래에 관해 검토하고

있다.

- 1) 미래의 연구도서관은 훨씬 더 유연성을 가져야 하며 업무 간 교류 및 협력이 가능해야 한다.
- 2) 관료제는 줄어들어야 하며 직원은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교육훈련을 받고 권한을 부여 받아야 한다.
- 3) 도서관의 구조는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선되어야 하며 이용자의 필요성에 부응해야 한다.
- 4) 미래의 연구도서관은 진정한 학습조직이 되어야 한다. 또한 그 구조는 직원의 개발과 지속적인 자질개선, 계속적인 계획수립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 5) 도서관의 조직구조는 통합과 팀워크, 커뮤니케이션, 직무만족을 증진시켜야 한다.
- 6) 미래에는 예산의 제약이 지속될 것이므로 직원 감소 추세를 권고안에 반영해야 한다.
- 7) 새로운 조직구조는 정보자원이 네트워크화되고 새로운 척도가 기존의 척도를 대체하며 점진적으로 도서관 이용자가 물리적 도서관에서 가상의 도서관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에서 열거한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대학도서관은 소장과 접근이 공존하는 정보환경의 변화와 이용자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구조를 비롯한 서비스 형태 그리

고 사서의 역할에 있어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정보 기술과 건물과 장서라는 물리적 공간개념의 적절한 연결, 도서관 내부 업무의 통합 및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변화는 필수적이다.

또한, 다양한 탐색 전략과 기법 도입에 따른 이용자의 정보검색 및 정보이용 행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변화도 필요하다.

C. C. Kuhlthau(1993)는 이용자의 정보추구 모델을 다음 <표 2>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상기 <표 2>와 같이 이용자는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 정보에 대한 요구를 인식하는 '인식 단계'부터 정보탐색을 마치는 '끝내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중에서 탐색의 일반주제를 정하는 확인, 일반 주제에 관한 정보 조사, 특정한 주제 영역에 초점을 맞추는 형성, 적합정보의 수집 등은 주제에 기초해 정보를 탐색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은 이러한 이용자들의 정보탐색과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서 및 서비스 제공 체계를 주제별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2. 2 대학도서관 변화의 방향

대학도서관은 다양한 요인들 즉, 기술의 발

전, 도서관 주변의 환경 변화, 이용자의 요구 등에 의해 변화되어 갈 것이다. 이와 같은 대학도서관의 변화를 예견한 학자들의 이론을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J. R. Euster(1987)는 도서관 시설의 변화, 자동화프로젝트 도입, 내부조직의 변화, 캠퍼스의 다른 조직과의 관계 변화, 재원확보 방안의 마련을 변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박수진(1996), 양수미(1997)는 대학의 사회적 역할과 학문적 역할의 변화, 이용자의 정보이용 행태의 변화 그리고 정보기술의 발달과 자동화의 도입을 도서관 변화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윤희윤(1999)은 대학도서관의 변화요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1) 물리적 시설, 직원, 자료 예산 등 도서관 규모의 변화
- 2) 기존에 제공하던 대출, 열람, 참고봉사 등에서 최신정보주지 봉사, 소급탐색 봉사, 서지조사 업무, 지적 정보시스템 업무 등이 포함된 도서관 제공 프로그램의 내용 변화
- 3) 반복업무의 신속한 처리, 수작업 시스템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직원 및 기능들간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을 가능

<표 2> Carol C. Kuhlthau의 이용자 정보탐색 과정 모델

단계	시작	선정	탐구	형성	수집	제시
느낌	불확실성	낙관	혼란	명쾌	방향감 자신감	안도감 만족/불만족
사고		애매성				→ 특징성 → 관심의 증가
행동	적합정보추구					→ 필요정보추구
행위	인식하기	확인하기	조사하기	형성하기	수집하기	끝내기

- 하게 할 수 있는 도서관 자동화
- 4) 정보의 수집, 처리, 축적, 전달, 재생에 관련된 일체의 기술을 의미하는 정보기술의 도입
 - 5) 교수와 학생수의 증감, 학과의 신설, 교과 과정 및 교수방법의 변화, 학문의 세분화, 교육문화 환경의 변화 등에 기인하여 과거보다 훨씬 다양하고 구체적이며 적극적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이용자들의 요구 변화
 - 6) 예기치 못한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조직구조를 갖추도록 요구하는 도서관 주변의 불확실한 환경을 비롯한 기타 환경적 요인들

이상의 학자들이 제시한 대학도서관의 변화 요인들을 종합하면 다음 <표 3>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상기 <표 3>과 같이 대학도서관의 변화요인은 규모의 거대화, 자동화의 도입, 이용자 요구의 변화 및 이에 따른 도서관 역할의 변화, 도서관 주변 환경의 변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도서관의 물리적, 지적 그리고 인적 구성요소 등의 변화요인은 대학도서관의 효과적인 이용자 봉사와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유기적 형태의 서비스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은 효과적인 이용자서비스의 제공과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자료와 서비스 그리고 이용자를 점차 분산시켜 나가야 한다.

이용자의 도서관에 대한 기대와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어가는 요구도 대학도서관 내부 조직들의 구분과 경계를 허물고 이용자와 서비스를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용자의 요구는 서비스의 제공과 장서구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장서중심의 구조에서 이용자중심 구조로의 패러다임의 이동은 도서관 조직을 업무단위의 구분으로부터 서비스단위의 구도로 전환함으로써 이용자로부터 격리된 부서를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도서관의 서비스도 점차 개별화 및 주제화의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Hugh Atkinson(1984)은 이상적인 도서관은 한 두명의 사서와 한 두명의 도서관 사무직원, 몇 명의 학생보조원,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용자, 이용자에게 적합한 규모를 가진 도서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도서관이 동일한 주제의

<표 3> 대학도서관의 변화 요인

구분 연구자	물리적 구성요소 (시설 및 공간)	지적 구성요소 (장 서)	인적 구성요소 (사 서)	이용자 구성요소	기 타
J. R. Euster	시설 및 규모의 거대화 자동화의 도입		서서조직의 변화	이용자와의 관계 및 역할 재조정 필요	재원확보방안 마련
박수진 양수미	자동화의 도입	학문의 변화에 따른 장서의 변화		정보이용 행태의 변화	대학의 사회적 역할 변화
윤희윤	자동화의 도입	장서규모의 거대화	직원규모의 변화	이용자 요구의 변화	서비스제공 방법의 변화 도서관 주변 환경의 변화

이용자집단에 봉사하는 작은 도서관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으로 점차 거대화되고 있는 장서와 다양화되고 있는 이용자의 요구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

Charles Martell(1983)은 사서들이 이용자 가 원하는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도서관 즉. 소규모의 이용자 중심 도서관으로 재구조화하는 계획을 제안하였다. 그는 소규모 도서관의 각 구성원은 참고 업무나 장서개발, 이용지도, 자체 편목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각각의 주제나 특성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체제로의 변화를 예견하고 있다.

한편, 대학도서관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83명 중 72명 (86.7%)이 대학도서관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이들 중 66명(91.7%)이 이용자봉사를 지향하는 부서중심 즉, 주제화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양수미 1997, 48-49) 이런 사실은 보다 강화된 서비스제공을 위해 주제화를 바탕으로 한 조직의 수평화가 업무의 효율화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자동화이후 업무의 분산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제별 혹은 이용자별 조직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 E. Altmann(1988)도 변화하는 정보환경 때문에 학술도서관의 기능별 구조는 주제별이나 이용자별 구조로 전환될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M. A. Bastiampillai & P. H. Williams (1987)는 현대의 도서관이 이용자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주제화는 대학도서관의 정보서비스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될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보접근에 있

어 이용자의 과반수는 주제로 접근을 하며 지속적으로 주제로부터의 접근은 증가할 것(丸山昭二郎 2004, 137)이란 주장도 있다.

결국, 대학도서관은 대학 학문의 주제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도서관의 체계적인 운영과 대량생산되고 있는 자료의 효과적인 조직, 매체의 다양화와 이용자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체적이거나 혹은 부문화의 한 방안으로 점차 주제화를 적용하게 될 것이다.

3. 대학도서관 주제화의 방향

현재 국내 대학도서관의 주제화는 공간적 제약과 장서 및 인력의 한계에 의해 기능별 부서의 하부조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대학간 통·폐합 및 자체적인 성장에 따른 대학 규모의 거대화와 장서량의 증가 등에 따라 다음 <그림 1>과 같이 점차 주제도서관 형태로 변화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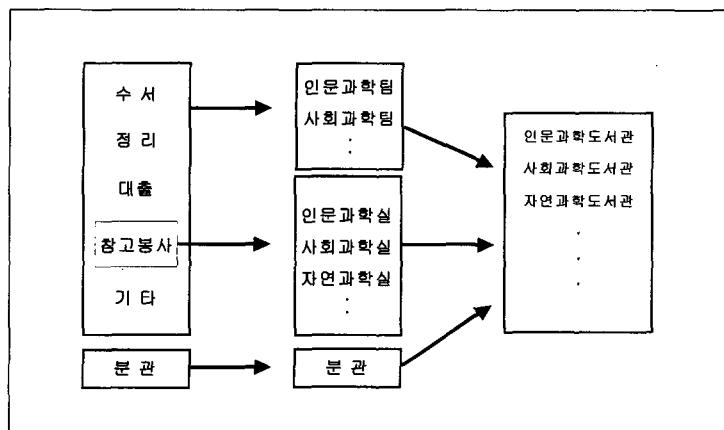
대학도서관의 주제화와 관련된 상황적 요인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대학도서관은 다양한 요구 및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권한의 위양 및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와 정보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계층의 단순화와 평면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 2) 도서관 규모의 확대와 장서의 증가에 따라 대학도서관들이 장서와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방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제화가 중형 대학도서관에 가장 적합하다고 한 Johnson의 주장대로 국내 대학 캠퍼스에



〈그림 1〉 대학도서관의 주제화 과정

있어서의 지리적 분화 그리고 대학도서관의 규모 및 시설 확장에 따른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내 대학도서관의 주제화는 급격한 규모의 증가를 경험한 미국과 같이 단기간의 유행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 Altmann(1988)은 정보기술 환경의 변화로 기능별 조직이 주제별이나 이용자별 조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그의 주장대로 정보제공기술과 다양한 형태로의 매체 발달에 따라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가 강조되는 주제화는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4) 자료의 분류 및 처리규정 등에 있어 네트워크를 통한 중앙도서관의 통제와 운영의 유연성이 확보되었다. 따라서, 한계상황에 도달하고 있는 공간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역적으로 구분된 광역화 형태의 주제화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주제화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공간확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도서관과는 별도의 건물로 운영되는 주제도서관과의 자료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분업화된 체제를

의미한다.

대학도서관의 주제화 적용에 있어 적절한 학생 규모는 Lundy(1970)의 경우 7,500명을, Hunt(1954)의 경우는 7,000명에서 10,000명이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주제화를 위한 이상적인 이용자 수란 있을 수 없다. 주제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공간의 규모는 다른 조직 및 서비스 형태와 마찬가지로 장서에 대한 공간의 비율이 높을수록 학생에 대한 사서의 비율이 높을수록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5) 전문화된 주제화 서비스의 요구가 높아가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자료 수집 및 이용의 증가와 다양한 도서관 내 업무의 자동화에 따라 전산업무를 담당할 조직에 대한 고려와 디지털자료의 선정 및 활용에 있어 자료형태에 의한 조직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주제서비스는 이용자의 요구를 적절히 판단하고 실제적인 이용과 서비스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제담당사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상황적 요인들을 고려할 때 국내 대학도서관의 주제화 적용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James Thompson(1977)은 도서관은 지식의 저장고이므로 반드시 주제에 따라 정리되어야 하고, 이러한 주제별 그룹화는 실제적인 이용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M. A. Bastiampillai & P. H. Williams (1987)는 주제화는 최적의 접근법이며 도서관 계층구조의 목표라고 결론짓고 있다.

결국, 주제화는 대학도서관의 지속적인 고려의 대상이자 이용과 서비스의 중심적 기준이 될 것이며, 기본적인 특징과 함께 이용자의 요구를 강조하고 사서의 계속교육 과정이 포함된 전체적인 서비스철학의 일부분으로서 남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하이브리드도서관을 지향하고 게이트키퍼 역할을 수행하게 될 미래의 주제화 적용 대학도서관을 위한 새로운 도서관 요소별 패러다임 분석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4. 주제화를 위한 구성요소

주제화가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도서관을 구성하는 물리적 구성요소, 지적 구성요소, 인적 구성요소 그리고 이용자 구성요소 사이에 체계적인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주제화를 적용하고 있는 대학도서관들은 이와 같은 요구에 적절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주제화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준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도서관 구성요소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대학도서관 주제화를 위한 구성요소의 변화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4. 1 물리적 구성요소

Ranganathan(1931)은 그의 도서관학 5법칙에서 제1법칙을 ‘도서는 이용하기 위해 존재 한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이는 도서관이 자료를 이용시키기 위한 기능적인 건물이라는 점을 밝혀 준다.

도서관의 공간계획에 대해 윤희윤(2002)은 건물의 기능성과 신축성, 최신 정보기술과 처리 기법의 활용성, 자료 및 이용동선의 체계성, 원격정보의 접근성, 미래의 확장 가능성 등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공간의 기능성, 이용의 편의성, 운영의 경제성 그리고 조화와 적합성을 기초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Peter Brophy(2005)는 접근성, 유연성, 밀집성, 편리성, 환경, 안전성, 자연채광의 사용, 편안함, 보존성 그리고 보안을 도서관을 위한 일반적인 공간활용의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자료의 디지털화에 따라 도서관 건물에 대한 중요성이 감소할 것이라는 기존의 예측과는 달리 오히려 네트워크를 통해 자료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더 많은 이용자가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

대부분 하나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 국내 대학도서관의 경우 각 층별로 주제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층별로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공간의 적절한 활용과

주제의 명확한 구분을 통한 편리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이용재(2001)는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국

내 대학도서관의 건물 특성을 고려한 주제실(관)의 배치를 다음 <그림 2>, <그림 3>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연구도서관 1관	
6	전 산 소
5	과학기술 도서관 (단행본)
4	과학기술 도서관 (연간물)
3	인문사회 도서관 (단행본)
2	인문사회 도서관 (연간물)
1	종합서비스 데스크, 종합정보검색실 상호대차실, 상설이용자 교육장
B1	대학사자료실 고전자료실

연구도서관 2관	
어문학 도서관(단행본)	
어문학 도서관(연간물)	
예체능 도서관	
전시공간, 세미나실	

학습도서관	
열람실	
열람실, 그룹스타디실	
멀티미디어센터	
종합서비스 데스크, 지정도서실	

<그림 2> 주제도서관 모형.1

중앙도서관 1관	
6	전 산 소
5	예체능 도서관
4	사회과학 도서관
3	인문사회 도서관
2	어문학 도서관
1	종합서비스 데스크, 종합정보검색실 상호대차실, 상설이용자 교육장
B1	대학사자료실 고전자료실

중앙도서관 2관	
열람실	
열람실, 그룹스타디실	
멀티미디어센터	
지정도서실	

과학도서관	
열람실, 대학원생캐슬	
응용과학 도서관	
순수과학 도서관	
종합서비스데스크, 상호대차실, 지정도서실	

<그림 3> 주제도서관 모형.2

상기 <그림 2>는 도서관 시스템을 연구도서관과 학습도서관으로 구성한 모형이다. 연구도서관은 중앙도서관 기능을 수행하며 대학의 교육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자료를 총괄적으로 소장하고 모든 이용자(교수, 대학원생, 학부생, 지역주민 등)를 대상으로 서비스한다. 그리고, 학습도서관은 주로 학부생의 과제물 처리를 지원하고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상기 <그림 3>은 중앙도서관과 과학도서관으로 구성하여 중앙도서관은 인문사회과학 자료를 소장하고, 과학도서관은 자연과학 분야의 자료를 소장하는 도서관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모형은 같은 캠퍼스 내에서 인문사회계 단과대학들과 이공계 단과대학들이 위치상 상호 분리되어 있는 경우와 각각 다른 캠퍼스에 존재하는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

윤희윤(2002)도 다음 <그림 4>와 같이 도서관의 효과적인 공간배치를 위해 장서를 주제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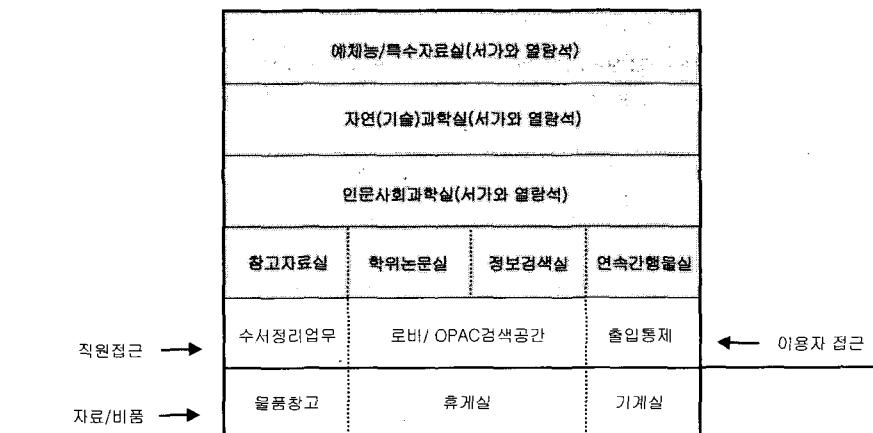
상기 <그림 4>의 경우 이용자의 동선을 중시

하여 이용도가 높은 자료(연속간행물, 참고자료, 학위논문, 기본도서 등)를 아래층에 배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주제별로 군집하는 경우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기술)과학의 순으로 아래층에 배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모든 주제실(관)이 독립된 건물로 구분되는 경우가 가장 적절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주제구분과 자료의 배치는 해당 도서관의 건물 구조와 공간을 고려해 배치되어야 한다.

점차 도서관은 직원이 도와주는 환경으로부터 이용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환경으로 변화해 이용자가 하나의 시설에서 다른 시설로 효율적인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공간구성의 목표는 이용자가 자료를 찾거나 자료를 찾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을 단축하고 편리하게 자료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도서관이 무한정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연계가 가능하고 이용자의 접근에 따른



<그림 4> 대학도서관의 공간배치 모형

편리성을 고려할 때 새로운 공간의 확보와 함께 위치적·지리적 분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은 제한된 건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용자의 정보접근을 체계적이고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주제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2 지적 구성요소

도서관에서 이용자가 직접 서가에서 자기가 원하는 자료를 쉽고 빠르게 찾아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자료의 배열이 필수적이다.

도서관의 장서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서의 배치 및 구성을 이용자가 선호하는 방법과 형태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 즉, 학문 및 지적 체계에 기초한 논리성보다는 이용을 전제로 한 실용성에 기초해 자료를 배치해야 한다.

장서 패러다임의 경우 다음 <그림 5>와 같이 도서관 중심에서 이용자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윤희윤 1999, 221).

장서의 구성 및 종류에 있어서도 기존의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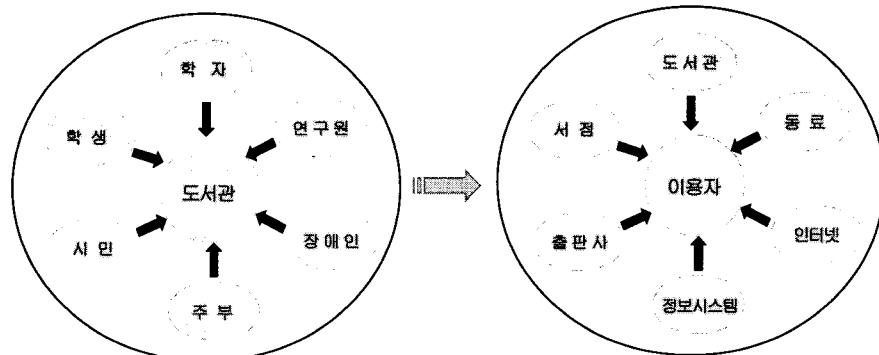
치론보다는 이용자의 요구론이 강조되고 있다.

대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의 활용정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경상계열을 포함한 인문·사회과학 계열교수들에 비해 공학계열 교수들의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준형, 권준모 2002, 113). 이러한 조사결과는 전공에 따라 활용 자료의 유형과 정보이용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료제공시 주제별로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제별로 자료제공과 서비스 방식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화된 자료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소장보다는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긴 하지만 접근은 언제나 소장을 전제로 하며 이상적인 접근 패러다임 역시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장서의 소장이 기초가 될 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G. E. Gorman & Ruth H. Miller(2000)는 이용자들을 위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식 기반, 주제전문성, 이용자 요구해석 및 자원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림 5> 도서관 장서 패러다임의 변화

주장한다.

Sheila Creth(1991)는 새로운 도서관의 패러다임을 언급하며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의 관리와 배치는 도서관에 대한 주제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서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제담당사서가 참고할 수 있는 학문영역별 자료의 특성과 이용성향은 다음 <그림 6>과 같다(윤희윤 1999, 225).

상기 <그림 6>과 같은 학문별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주제별 균형과 특성 파악을 통한 효과적인 장서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다.

매체의 다양화와 장서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자료의 배치는 학문 및 지적 체계에 기초한 논리성보다는 이용을 전제로 한 실용성에 기초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에 맞추어 주제화된 장서의 구성 및 배치는 이용자로 하여금 탐색 및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이용의 효과 또한 극대화 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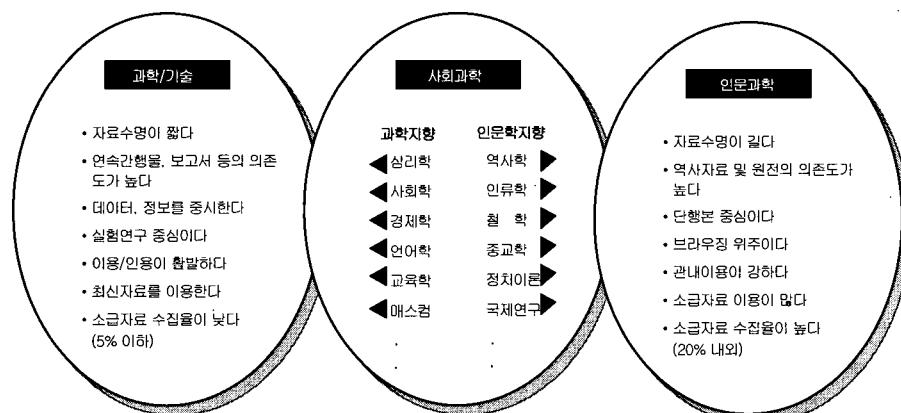
4. 3 인적 구성요소

단순히 장서를 수집하고 관리하던 사서의 업무는 이용자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점차 변화하고 있다.

구본영(2002)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 중 85%가 사서의 미래 역할에 대해 전통적인 문현정보학의 전문적인 역할에 교육적인 책임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하고 있다. 즉, 사서는 정보와 이용자간의 커뮤니케이션 통로로서의 역할과 학문적 정보의 체계적 축적 그리고 주제지식의 숙달을 통한 교육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결국, 도서관 주변 환경의 변화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대학도서관 사서들은 보다 전문화된 역할을 요구받고 있으며 증가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의 주제화도 이러한 변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정동열(2005)은 도서관이나 정보센터를 포함해 모든 분야에서 주제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특정 주제분야에 대해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수집과 정리 차원을 넘어 관련 주



<그림 6> 장서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학문영역별 속성체계

제분야의 처리와 검색은 물론 분석과 평가를 담당할 수 있는 주제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헌정보학 교육기관이 전재자(generalist)를 기르는 현행 제도에서 탈피하여 전문주제에 정통하며 문헌정보학 교육을 받은 전문가(Specialist)를 양성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즉, 특정 주제분야의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들을 입학시켜 문헌정보학 석사학위를 주는 교육제도를 도입하거나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후과정을 도입하여 전문 주제분야의 지식과 서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주제전문가를 배출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국내의 현실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내 대학도서관의 주제화에 필요한 사서는 하나의 관련주제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주제전문가가 아니라 폭넓은 주제에 대한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안내해주고 제공해주는 서지전문가이다. 또한, 주제화가 물리적인 구분보다 주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서의 확보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서에 대한 지원에 관심을 가지며 이와 같은 서비스 철학이 중심이 되는 조직유형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용재(1998)는 한국 대학도서관 현실에서 주제담당사서는 포괄적인 주제분야 예컨대, 인문과학·사회과학·자연과학 자료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담당분야의 이용자 및 서지 연구·출판동향의 파악·참고봉사·자료선정 및 장서평가 활동을 통해 담당주제분야의 서지적 지식을 축적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주제담당사서의 양성을 위해 주

제서지 과목의 강화와 사서자격증에 주제전공분야를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문헌정보학 전공 대학원생들로 하여금 이용자 연구와 주제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경험을 갖도록 문헌정보학과와 주제 대상학과가 협의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이용재 2001, 173-182).

하지만, 도서관 현장에서 사서 채용시 주제담당사서를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학과들과의 실제적인 상호 협의에 따른 문제가 있어 현실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이상에서 열거한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기초로 현실적 주제담당사서 양성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문헌정보학계와 대학도서관현장이 연계된 산학협동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함으로써 현장 사서들을 정규 대학원 석·박사과정에서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현장사서들에 대한 재교육 및 주제담당사서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계에서도 주제담당사서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현장사서들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현장과 이론을 결합한다는 의미를 가지며 변화하는 환경에서 학계와 현장이 모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자 현장에 있는 사서를 주제담당사서로 육성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 2) 문헌정보학과의 대학원과정에 각 대학별로 특성화된 주제서지분야 과목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각 대학별로 한 두개의 주제서지 과목을 운영함으로써 관련 주제에 관한 주제담당사서를 양성하는 방법이 있다.

- 3) 다양한 차원에서 주제담당사서들간의 협

력망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정기적으로 각 주제와 관련된 참고봉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들간의 모임을 주선하고 이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조직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주제화로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의 주제구분이 비슷한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축척하고 있는 경험이나 주제지식을 공유한다면 한 단계 높은 주제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¹⁾

주제화의 운영은 해당 주제분야의 지식을 갖고 주제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 주제담당사서의 충분한 확보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

주제화로 운영하거나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대학도서관들의 경우 주제지식을 가진 사서가 부족하다는 점, 주제서비스를 담당할 사서와 직원에 대한 전문적 주제지식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제화 구조로 개편한 이후에도 주제화를 바탕으로 한 적절하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G. W. White(1999)는 8년간의 사서 구인광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주제서비스를 담당할 사서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요건을 다음 <표 4>와 같이 분석하고 있다.

상기 <표 4>와 같이 컴퓨터 기술 및 DB 탐색능력 등과 같은 기술적 자격보다 이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나 협동작업 등과 같은 인성적 특성이 주제담당사서의 자질로 더 많이 요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주제담당사는 관련된 주제분야의 지식, 정보를 가공하고 전달하기 위한 컴퓨터기술과 함께 이용자와의 대화기술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소유할 필요가 있다.

주제담당사서의 역할로는 해당주제분야의 참고질문에 대한 응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 주제와 관련된 정보 및 정보원을 수집·개발하

<표 4> 주제담당사서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자격

경영학	사회과학	과학
커뮤니케이션(75)	커뮤니케이션(77)	커뮤니케이션(74)
협동작업(49)	협동작업(39)	컴퓨터기술(37)
경영학 관련자료의 지식(42)	봉사지향성(31)	협동작업(36)
컴퓨터기술(40)	컴퓨터기술(29)	학위나 경험(28)
봉사지향성(35)	DB탐색(22)	DB 탐색(27)
이용지도(16)	학위나 경험(19)	봉사지향성(26)
환경의 적응력(15)	이용지도(18)	과학자료의 지식(24)
2년이상의 경력(15)	참고봉사 경험(18)	창조성/진취성(16)
경험과 코스워(10)	장서개발 경험(16)	전문단체 활동(13)
학위와 경험(9)	인터넷/웹(16)	2년이상의 경력(11)

1) 현재 수서, 정리, 연속간행물, 참고/열람, 상호대차, 전산의 기능별 조직을 바탕으로 구분되어 현장사서들이 서로의 업무와 관련한 정보와 의견교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서서커뮤니티의 예를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기능별 조직구분과 함께 주제별 구분 즉,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으로 나눈 주제담당사서간 커뮤니티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

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on-line과 off-line 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주제담당사서의 또 다른 역할로는 효과적으로 정보를 수집·활용하고 다양한 정보자료에 대한 소개와 효과적인 활용을 돋기 위한 교육적 기능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많은 대학도서관의 경우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정보활용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²⁾ 따라서, 도서관에 관한 전반적인 시설 및 이용방법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부터 각각의 주제실(관)을 담당하는 주제담당사서가 중심이 되어 각종 주제정보를 제공하고 연구자료나 학습에 필요한 깊이 있는 자료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활용능력 교육까지 세분화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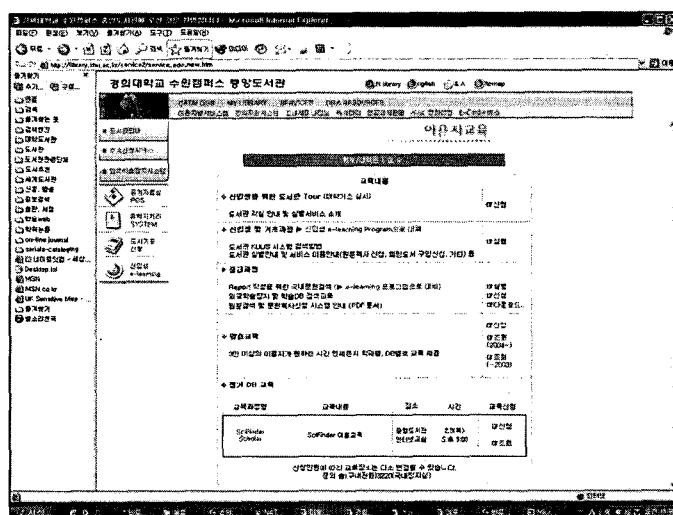
다음 <그림 7>은 다양화된 교육과정의 한 예

를 보여주고 있다.

상기 <그림 7>의 예와 같이 이용자교육 프로그램은 이용자와 정보의 종류, 주제의 구분에 따라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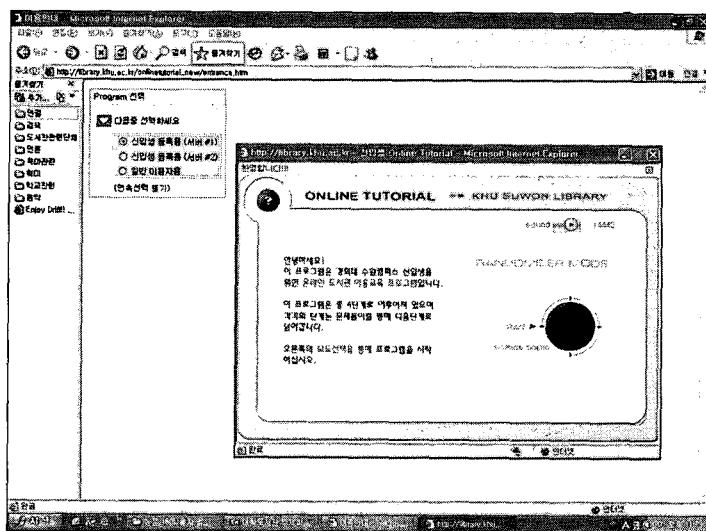
또한, 다음 <그림 8>과 같이 이용자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교육적 기능을 포함한 주제화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주제담당사서는 주제화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주제담당사서 양성과 확보방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것은 대학도서관 주제화의 실제적인 활성화뿐만 아니라 사서의 위치와 역할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림 7>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의 수준별·이용대상자별 구분의 예

2) 최은주, 대학도서관 참고정보서비스업무의 CD-ROM 데이터베이스 활용에 관한 현황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2권, 제2호(1998.6), p.47에 의하면 1998년 전국적으로 장서수 20만권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도서관 66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용자교육이 정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도서관은 14.8%(8개)에 지나지 않았고, 수시로 원하는 이용자에게 교육한다는 대학도서관이 40.8%(22개)로 나타났다. 그리고 33.3%(18개)의 대학도서관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있었으며 11.1%(6개)는 전혀 이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8〉 대학 신입생 이용자 교육을 위한 e-learning 교육프로그램

4. 4 이용자 구성요소

도서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중에서 '이용자의 요구(17%)'가 '대학도서관의 모체가 되는 재단 및 대학 내 기관(35%)'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 이용자들의 요구가 도서관 운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옥선 2002, 54). 이에 따라 도서관도 이용자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서비스와 대처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대학도서관 이용자의 불평 선행요인에 따른 불평의도 유형은 다음 〈그림 9〉와 같다(오동근 2002, 63).

상기 〈그림 9〉와 같이 이용자는 자신이 의도한 결과를 얻지 못했거나 기대에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 이용중단 또는 부정적 구전의도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불평 유형을 보인다.

따라서, 도서관은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들의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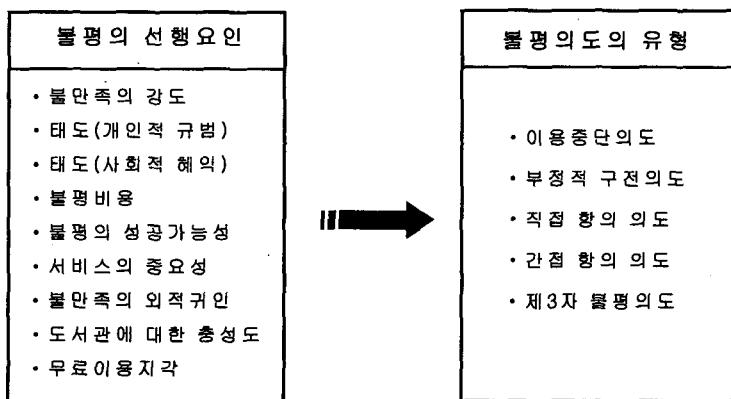
보추구 행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용자들이 정보를 필요로 할 때 어떤 방식으로 검색도구를 이용하고, 도서관 및 사서에 접근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도서관 구현을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요구한 정보와 관련된 주제를 파악하여 보다 심층적이고 분석적인 정보의 제공 역할과 이용자 개개인에 대한 일대일 맞춤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Maryland대학의 Business School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행태를 조사한 연구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Abels 2004, 164).

상기 〈표 5〉와 같이 이용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서에게 접근하고 있으며, 특히, 중앙도서관(7%)보다 주제도서관(13%)으로의 접근을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1년간 참고질문 총 161,729 건을 분석한 결과 방문과 전화상담을 이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주제자료실 설치 이후 이



〈그림 9〉 대학도서관 이용자 불평의도의 영향요인에 관한 모형

〈표 5〉 Maryland대학 Business School 학생들의 사서 접촉 수단 선호도

사서접촉수단	사용경험 (n = 161) (모두 선택)	선호도 (n = 161) (하나만 택일)
가상참고서비스	68%	21%
E-Mail	65%	16%
중앙도서관 참고사서	47%	7%
Business school 참고사서	46%	13%
전화서비스	47%	10%
기타	N.A.	33%

용자들의 주제자료실 이용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용자봉사개선소위원회 2004, 120, 127)

이와 같은 이용자의 성향에 기초해 볼 때 도서관은 필요한 자료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고 서비스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제적 공간 구성과 서비스 형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주제화로의 변화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실시된 이용자 만족도 조사 를 보면 다음과 같다.

서강대학교 도서관(1998)에서 1998년 11월에 조사한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주제화로 전환한 것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77.1%(517명)로 나타났으며, 불만족하

거나 매우 불만족하다는 응답자는 4.1%(28명)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성균관대학교 도서관(1998)에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주제화 운영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서도 49%(75명)의 응답자가 편리하다고 응답했고, 10%(17명)만이 불편하다고 답하고 있다.

동의대학교 도서관(2003)에서 2003년 7월에 실시한 도서관 이용자 요구 및 만족도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주제실(관) 운영체계에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36.3%로 나타났으며, 이에 반해 불만족 한다는 응답자는 3.1%에 지나지 않았다. 즉, 대학도서관 이용자들은 주제화가 도서관 이용 및 정보획득에 있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

연구를 통해 얻어진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대학 도서관의 서비스와 공간 구성 그리고 자료배치는 주제에 기초해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결 론

대학도서관과 대학도서관 주변 환경의 변화 그리고 도서관 구성요소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새로운 정보환경과 서비스 제공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고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대학도서관의 장서와 서비스는 주제화를 기반으로 재조직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학도서관의 주제화는 도서관을 구성하는 물리적 구성요소와 지적 구성요소 그리고 인적 구성요소의 적절하고 체계적인 조화가 이루어질 때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각각의 구성요소들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주제화의 효과적인 적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학도서관의 주제화를 위한 도서관 구성요소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리적 구성요소 즉, 도서관 건물 및

공간은 자료의 증가, 이용자의 편리성 추구 경향 그리고 동선의 효율성을 고려한 형태로의 변화가 요구된다.

둘째, 지적 구성요소의 경우 논리성보다는 실용성에 기초한 자료 배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의 탐색과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이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인적 구성요소는 점차 이용자의 전문적이고 주제적인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이용자와 정보간의 커뮤니케이션 중재자 그리고 주제지식의 숙달을 통한 교육적 기능이 강화된 역할을 수행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사서는 주제화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이를 통해 주제담당사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용자는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요구하며 정보이용행태에 있어 주제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이용자들의 정보검색 및 자료 이용 성향 그리고 정보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도서관의 장서와 서비스는 주제를 기초로 재조직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김준형, 권준모. 2002.『대학교육정보화 종합 발전 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경희대학교 도서관 정보활용 교육프로그램.[online].[cited 2005. 4. 15].
http://library.khu.ac.kr/service2/service_edu_new.htm.

경희대학교 도서관의 신입생을 위한 e-learning 교육프로그램. [online]. [cited 2005. 4. 15].

http://library.khu.ac.kr/onlinetutori al_new/entrance.htm.

구본영. 2002. 문헌정보학 전문직의 정체성과 미래의 전망.『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3):

- 93-113.
- 동의대학교도서관. 2003. 『도서관 이용자요구 및 만족도 설문조사 보고서』. 부산: 동의대학교.
- 박수진. 1996. 『대학도서관 조직구조의 새로운 모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문현정보학과.
- 서강대학교도서관. 1998. 『도서관 이용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 보고서』. 서울: 서강대학교.
- 성균관대학교도서관. 1998. 『도서관 이용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설문 결과 보고』. 서울: 성균관대학교.
- 양수미. 1997. 『자동화에 따른 대학도서관 조직 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현정보학과.
- 오동근. 2002. 대학도서관 이용자의 불평의도와 그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 도서관·정보학회지』, 33(4): 61-83.
- 윤희윤. 1992. 대학도서관 조직구조의 개선모형 연구. 『도서관학』, 22: 401-405.
- _____. 2002. 『대학도서관경영론』. 대구: 태일사.
- _____. 1999. 『장서관리론』. 대구: 태일사.
- 이옥선. 2002. 『기술교육특성화 지원을 위한 대학도서관의 기능과 조직 정립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문현정보학과.
- 이용재. 1998. 현단계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서의 주제사서제 활용 방안. 『도서관학논집』, 29: 273-311.
- 이용봉사개선소위원회. 2004.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행동 연구. 『도서관』, 59(1): 115-136.
- 이용재. 2001. 『대학도서관 운영의 주제화에 관한 연구 : 부산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현정보학과.
- 정동열. 2005. 『도서관경영론』.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최은주. 1998. 대학도서관 참고정보서비스업무의 CD-ROM 데이터베이스 활용에 관한 현황 분석. 『한국문현정보학회지』, 32(2): 35-54.
- 丸山昭二郎. 2004. 『정보와 도서관』. 류현숙, 백성규 역. 서울: 경인문화사.
- Abels, Eileen. 2004. "Information Seekers' Perspectives of Libraries and Librarians." *Advances in Librarianship*. Amsterdam: Elsevier.
- Altmann, Anna E. 1988. "The Academic Library of Tomorrow : Who Will Do What?" *Canadian Library Journal*, 45(3): 147-152.
- Atkinson, Hugh C. 1984. *The Impact of New Technology on Library Organization*. in the Bowker Annual of Library & Book Trade Information, 29th ed. New York: R. R. Bowker.
- Bastiampillai, M. A. and P. H. Williams. 1987. "Subject Specialization Reexamined." *Libri*, 37(3): 196-210.
- Bowers, M. 1996.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in Academic Libraries : a Case Study."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22(2/3): 133-144.

- Brophy, Peter. 2005. *The Academic Library*. 2nd ed. London: Facet Publishing.
- Crawford, Walt and Michael Gorman. 1995. *Future Libraries : Dreams, Madness & Reality*. Chicago: ALA.
- Creth, Sheila. 1991. "The Organization of Collection Development : A Shift in the Organization Patadigm."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14: 67-85.
- Euster, Joanne R. 1987. *The Academic Libraries Director : Management Activities and Effectiveness*. New York: Greenwood Press.
- Gorman, G. E. and Ruth H. Miller. 2000. 『디지털환경에서의 장서관리 이론과 실제』. 남태우 역.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Hunt, Donald R. 1954. *Description and Evalution of the Divisional Plan of Organization in College and University Librarie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 Kuhlthau, Carol C. 1993. *Seeking Meaning: A Process Approach to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Norwood, NJ: Ablex Publishing.
- Lancaster, F. Wilfrid and Amy J. Warner. 1993. *Information Retrieval Today*. Arlington: Information Resources Press.
- Lundy, Frank A. 1970 "The Divisional Plan Library at the University of Nebraska: Its Development, its Significance, its Contributions, Mountain-Plains." *Library Quarterly*, 15: 3-12
- Martell, Charles R. 1983. *The Client-Centered Academic Library : An Organizational Model*. Westport, CT: Greenwood Press.
- Ranganathan, S. R. 1931. *The Five Laws of Library Science*. Bombay: Asia Publishing House.
- Thompson, James. 1977. *A History of the Principle of Librarianship*. London: Clive Bingley, 1977.
- White, Gary W. 1999. "Academic Subject Specialist Positions in the United States : a Content Analysis of Announcements from 1990 Through 1998."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25(5): 372-382.